

랭크 구간이 막혀 답답할 때, 챔피언 풀을 바꾸고 싶을 때, 혹은 단순히 말이 통하는 파트너와 게임을 즐기고 싶을 때 듀오를 찾는다. 문제는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암체와 사기꾼이 뒤섞인다는 점이다. 롤커뮤니티에서 듀오를 구해 본 경험이 여럿 있다면, 선입금 요구나 실력 위장, 계정 대리 제안, 외부 사이트 유도 같은 수법을 한 번쯤은 봤을 것이다. 몇 번의 시행착오와 주변 사례를 모아 보면, 사기는 대개 비슷한 패턴으로 접근하고, 안전한 거래와 즐거운 듀오를 만드는 방법 역시 일관된 원칙 위에 놓여 있다.

여기서는 국내에서 자주 쓰이는 커뮤니티의 현실과 사기 수법을 구체적으로 짚고,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검증법과 대화 팁, 돈과 약속을 다루는 방법을 정리한다. 특별한 기술보다도, 기본 수칙을 꼼꼼하게 지키는 쪽이 체감상 훨씬 큰 안전을 준다.

커뮤니티 지형 이해하기

듀오를 구하는 채널은 다양하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디스코드 서버의 구인 구직 채널, 인벤과 디시인사이드 같은 게시판, 일부 스트리머 방송 채팅이나 공카, 그리고 지역 클럽 방이 뒤섞여 있다. 실력과 매너가 검증된 클럽 중심의 커뮤니티는 진입이 어렵지만 비교적 안전하고, 오픈채팅이나 대형 디스코드처럼 누구나 들어오는 열린 공간일수록 변수가 많다.

실제 체감상, 사기는 오픈 구조에서 빈번하다. 게시판은 신고와 차단이 비교적 잘 돌아가지만, 계정 하나 버리고 도망치면 그만이라는 점은 같다. 반대로 개인 지인 추천이나, 최소한 한두 단계의 신뢰 관계가 있는 방에서는 가격이 조금 비싸도 분쟁 비율이 낮았다. 결국 환경이 불특정 다수에 가까울수록, 검증 절차를 본인이 더 촘촘하게 가져가야 한다.

왜 듀오 사기가 생기는가

심리는 단순하다. 게임 스펙은 눈으로만 보면 속이기 쉽다. 누군가가 티어 이미지를 캡처해서 보낸다 해도, 그 아이디가 본인 것인지, 최근 시즌 실력이 맞는지, 듀오를 하며 어떤 태도로 플레이할지는 확인이 어렵다. 그리고 많은 의뢰가 소액이다. 1인당 1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시리즈로 잡아도 10만 원대. 소액일수록 피해자가 그냥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 가벼운 사기가 잘 먹힌다.

여기에 선입금 관행이 문제를 키운다. 대리나 코칭 시장에서 선입금이 당연시되던 시절의 습관이 남아 있어, 초면에 돈을 먼저 보내라는 요구가 자연스럽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듀오는 대리나 코칭과 달리 즉시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초반 합을 맞춰 보고 대금을 분할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흔한 수법, 낯설지 않게 알아두기

내가 직접 겪거나 가까운 지인이 당한 유형은 몇 가지 범주로 묶인다. 가장 흔한 것은 실력 위장과 선입금 후 잠수다. 라인전 리플레이나 하이라이트만 골라 보내고, 라이브 게임에선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여 준다. 또는 1판만 해 보고 바로 “시리즈 선결제하면 할인”을 외치다가 송금하면 자취를 감춘다.

외부 사이트 유도도 잦다. “우리 팀은 플랫폼을 통해 결제하면 안전하다”는 말과 함께 낯선 링크를 보내거나, 아예 게임과 무관한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다. 예컨대 배팅이나 포인트 교환을 핑계로 신뢰도를 과장하는 식인데, 대화 도중 스포츠 토토나 카지노 브랜드를 은근히 흘리기도 한다. 실제로 비제이벳 같은 이름을 거론하며 “여기서 활동하는 파트너다, 신원을 인증했다”는 식의 말을 덧붙이는 사례가 있었는데, 듀오와 무관한 사이트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경계심을 올리는 편이 옳다. 특정 브랜드의 실제 성격과 무관하게, 듀오 매칭과 결제가 외부 상업 사이트로 흘러가는 구조 자체가 위험을 키운다.

마지막으로 계정 공유를 제안하는 유형이 있다. “당신 계정으로서는 안 된다, 내 계정으로 돌리자” 혹은 반대로 “아이디를 넘겨주면 빠르게 올려 준다”처럼 말한다. 이는 라이엇 이용 약관 위반 소지가 크고, 계정 영구정지나 정보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듀오의 장점은 각자 계정으로 함께 플레이한다는 점인데, 이 원칙이 흔들리면 사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진다.

실력과 신원을 검증하는 현실적인 방법

듀오의 본질은 함께 게임을 한다는 데 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검증의 핵심이다. 정리하면, 짧고 명확한 지표부터 확인하고, 가능한 한 라이브로, 거래는 작게 나누는 순서가 안전하다.

첫째, 아이디와 서버, 최근 시즌 티어를 텍스트로 받지 말고, 클라이언트 라이브 화면을 공유받거나 직접 로비 초대를 요청한다. 오피지지와 u.gg, fow.kr 같은 전적 사이트에서 닉네임, 시즌별 티어, 챔피언풀, 라인 고정 여부, 듀오 비율을 본다. 특히 최근 20판의 KDA 분포와 평균 CS, 솔랭 비율은 실전에 가까운 힌트를 준다. 특정 라인에서 고정적으로 55퍼센트 이상 승률을 유지하는지, 듀오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지 않은지 보는 편이 좋다.

둘째, 출처가 분명한 리플레이를 요구한다. 스크린 레코더로 녹화한 하이라이트 대신, 실제 매치 ID를 받아 관전 모드로 확인하거나, 디스코드 화면공유로 솔로랭크 1판을 짧게 지켜보는 식이 효율적이다. 과장된 클립보다 시야 점수, 라인전 구도에서의 파밍 리듬, 교전 전 포지셔닝이 실력을 잘 드러낸다.

셋째, 음성 대화를 해 본다. 실력뿐 아니라 매너 검증에 필수다. 5분만 말해 보면 핑계를 먼저 대는 사람인지, 상대 실수 탓으로 돌리는 성향인지, 간단한 전략 합의가 가능한지 감이 온다. 게임 도중 과도한 지시나 비하가 있다면 초기에 거른다. 분쟁 대부분이 실력보다 매너에서 시작된다.

넷째, 플레이룰과 리스크를 먼저 합의한다. 사전항목으로는 라인과 챔프풀, 승패 기준의 과금 방식, 정해진 시간대, 예상 세트 수, 그리고 판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포함된다. 애매할수록 문장으로 남겨 둔다. 시간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은 실제 게임에서도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다섯째, 첫 거래는 작게, 그리고 나눠서 한다. 보통 2판, 많아도 3판까지를 첫 단위로 삼고, 그 이후 추가 합의로 늘린다. 이때 결제는 선입금이 아니라 1판 완료 후 결제로 쪼개면, 사기꾼이 버틸 이유가 사라진다. 정말 자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구조를 거부하지 않는다.

돈과 약속을 다루는 방법

듀오 비용은 구간과 목표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 기준으로 플래티넘 구간에서 게임당 5천 원에서 1만 5천 원 사이, 다이아 이상은 그 이상을 부르기도 한다. 지나치게 싼 가격은 의심 사유다. 결국 시간을 파는 거래인데, 최저 시급보다 한참 낮은 가격으로 오래 플레이하겠다는 제안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반대로 너무 비싼 가격도, 나중에 분쟁을 키운다. 본인이 체감할 수 있는 가치 범위에서, 결과가 엇갈려도 수용 가능한 단가를 정한다.

결제 수단은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토스, 은행 이체, 페이류 모두 송금 기록이 남는다. 기프트콘, 문화상품권, 암호화폐, 스킨 기프트 등 환불 경로가 불명확한 결제는 피한다. 영수증 캡처와 채팅 로그는 폴더를 만들어 모아 둔다. 분쟁 발생 시 운영진이나 플랫폼 신고에 필요하다.

시간 약속은 과하게 넉넉하게 잡는다. 현실적으로 1판은 25분에서 40분, 큐 대기과 뱅킹, 휴식 포함 1시간당 1.5판 페이스를 예상하면 덜 흔들린다. 3시간에 4판, 5시간에 7판 [롤커뮤니티](#) 정도가 보통이다. 이 숫자에 합의하면 기다림 스트레스가 줄고, 그 스트레스가 판단력에 미치는 악영향도 줄어든다.



커뮤니케이션 습관, 작은 차이가 큰 안전을 만든다

메시지를 짧고 구체적으로 쓴다. “골드 1, 미드 주력, 이번 주말 저녁 3판, 판당 결제, 디코 가능, 합이 맞으면 추가” 정도면 서로 필요한 대부분의 실무 정보가 담긴다. 상대 제안도 이 수준의 구체성으로 오지 않는다면, 가능하면 넘긴다. 느슨한 합의는 나중에 해석 싸움으로 번진다.

프로필을 단정히 관리한다. 디스코드나 오픈채팅에서 이전 기록을 볼 수 있다면, 타인과의 대화 태도, 욕설 이력 등을 한 번쯤 확인하라. 반대로 본인도 정제된 소개를 올려야 좋은 파트너가 붙는다. 내가 본 최상급 파트너들은 자신의 제한사항을 숨기지 않았다. “잡담 적게 함, 라인전 중간중간 피드백 드림, 상성 나쁘면 서렌 제안할 수 있음” 같은 문장이 오히려 신뢰를 키웠다.

상대의 시간과 에너지에 선을 그어 준다. 누구든 감정이 과열되면 실수가 잦아진다. 3연패가 나오면 그날은 접는 규칙, 겜 끝나고 10분은 쉬었다가 다음 큐를 잡는 규칙 같은 합의가 소소하지만 중요했다. 작은 의식이 감정 소비를 줄이고, 그만큼 사기의 달콤한 제안을 무심히 흘려보낼 여유를 만든다.

빠르게 위험을 걸러내는 체크리스트

- 아이디 확인은 반드시 라이브 로비 초대나 화면공유로 한다.
- 첫 거래는 2판 이하로 작게, 그리고 판당 결제로 나눈다.
- 대화 중 외부 사이트 가입이나 본인인증, 결제를 요구하면 중단한다.
- 음성 통화로 기본 매너와 의사소통을 점검한다.
- 오피지지 등 전적 사이트에서 최근 20판 데이터와 듀오 비율을 확인한다.

커뮤니티별 특성에 맞춘 운영 팁

오픈채팅은 가볍고 빠르다. 속도가 장점인 만큼, 검증 수순을 미리 정해 두면 좋다. 내 경우, 동일한 세 문장을 준비했다. “아이디 알려 주세요, 로비 초대 가능하신가요”, “디코 5분 가능하신가요”, “첫 2판은 판당 결제 괜찮나요”. 이 세 질문에 부드럽게 답하는 사람과의 거래는 대부분 문제없이 갔다. 한 문장이라도 회피하거나, 다른 화제로 돌리면 다음 후보로 넘어갔다.

디스코드는 방마다 성격 차가 크다. 룰이 뽀뽀한 서버는 입장 질문과 인증 절차가 귀찮아도, 일단 들어가면 분쟁이 줄어든다. 반면 초대 링크가 쉽게 풀리는 서버는 광고와 외부링크가 많다. 관리자 응답 속도, 신고 처리 이력, 공지 빈도를 보고 체류 여부를 결정한다. 서버 공지가 “외부 결제 유도 금지”를 명시하고, 실제로 적발 사례를 공유하는 곳은 신뢰할 만했다.

게시판은 글의 문체를 본다. 결과를 과장하거나, “장당 3천, 선입금 필수”처럼 과도하게 유혹적인 문구는 경고 신호다. 반대로 이전 이용자의 피드백이 꾸준히 달리는 판매자형 계정은 확률이 높다. 다만, 댓글이 모두 칭찬뿐이라면 오히려 의심해 본다. 정상 거래에는 작은 불만이나 조정의 흔적이 남는다.

심리전, 사기꾼이 파고드는 틈

사기꾼은 늘 시간 압박을 건다. “지금만 이 가격” “자리가 곧 마감” 같은 말은 합리적 판단을 막는다. 게임에서도 타이머가 압박을 건다. 뱅크이 시작되면 생각할 여유가 줄고, 단가나 조건을 흐리게 합의한 채 게임을 눌러 버리기 쉽다. 그래서 나는 합의를 마치기 전에는 절대 큐를 누르지 않는다. 대화창에 최종 조건을 짧게 요약해 확인 받고, 그 스샷을 저장한 다음에야 시작한다.

또 하나는 인정욕구다. “브실골은 캐리 못 한다”, “내가 다이아 찍어 준다”는 식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면, 현실 감각을 잃는다. 룰은 팀 게임이고, 구간을 올리는 건 단기간의 폭발보다 장기적인 습관 교정과 듀오 시너지의 문제다. 따라서 듀오는 동료를 사는 행위지, 마법사를 사는 일이 아니다. 이 관점을 잃지 않으면 허황된 약속에 흔들리지 않는다.

경계해야 할 의심 신호

- 선입금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판당 결제를 이유 없이 거부한다.
- 오피지지 전적을 공유하되, 로비 초대나 라이브 공유는 회피한다.

- 결제를 특정 외부 사이트로 유도하며, 본인인증이나 충전을 요구한다.
- 과도하게 싼 가격을 제시하며, “지금만 가능” 같은 시간 압박을 건다.
- 계정 공유나 대리 플레이를 은근히 제안해, 빠른 결과를 약속한다.

문제 발생 시 손실을 줄이는 절차

피해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 그럴수록 절차가 중요하다. 상대 닉네임, 디스코드 태그, 오픈채팅 프로필, 계좌번호, 대화 스크린샷, 송금 내역을 한 파일로 정리한다. 이용한 커뮤니티의 신고 채널에 올리고, 운영 규정 위반 항목과 함께 적는다. 같은 사람이 다른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니, 프로필 이미지나 말투 특징도 덧붙인다. 대부분의 커뮤니티는 즉각 환불까지 강요하긴 어렵지만, 최소한 추가 피해를 막는 차단과 공지 정도는 이뤄진다.

금전 피해가 크거나, 반복 범행 정황이 뚜렷하면 사이버범죄 신고를 고려한다. 금액이 작아도 계좌번호와 채팅 기록이 분명하면 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실제 환불까지 이어지는 확률은 높지 않다. 그래서 처음부터 잃어도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결제하고, 거래를 쪼개는 원칙이 다시 중요해진다.



회색지대, 애매한 사례에 대한 판단

실력은 충분해 보이는데 말투가 험하다면, 단기 성과는 날 수 있어도 장기 듀오는 추천하지 않는다. 실력은 숫자로 보완되지만, 매너는 쉽게 안 바뀐다. 반대로 실력이 약간 모자라도, 소통이 매끄럽고 합의 이행이 확실한 파트너는 시간이 지날수록 효율이 오른다.

가격 협상에서 상대가 “장당 1만 2천이면 가능한데, 첫 2판만 1만 5천으로 시작하고 이후 조정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사기가 아니고 리스크 프리미엄에 가깝다. 새 고객과의 첫 거래에 상향 단가를 붙이는 관행은 시장 어디에나 있다. 다만, 첫 2판의 결과와 만족도를 기준으로 단가를 정상화하는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외부 사이트 언급이 반드시 사기라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일부 팀은 디스코드 외부에 자체 포럼이나 캘린더를 쓰고, 그 링크를 공유한다. 차이는 맥락이다. 듀오 매칭과 결제에 굳이 필요 없는 사이트라면, 특히 도메인이 생소하거나, 본인인증과 충전을 요구한다면 멈춘다. 가끔 채팅에서 롤커뮤니티 외부 상호나 브랜드 이름을 흘리며 신뢰를 포장하려는 시도가 보이는데, 비제이벳 같은 도박 관련 명칭이 등장하는 순간은 대체로 레드플래그에 가깝다. 듀오와 무관한 외부 상업 요소가 끼어들면 변수가 너무 많아진다.

실제 대화 예시, 무엇이 다르게 흐르는가

안전했던 케이스. 내가 보낸 첫 메시지는 간단했다. “골드 1 미드, 오늘 2판 테스트 원합니다. 디코 5분 가능하신가요, 판당 결제 괜찮으신지요.” 돌아온 답은 “가능, 아이디 ooo, 지금 로비 초대 드림, 전적 확인 후 시작하시죠.” 3분 뒤 로비에 함께 섰고, 디코에서 라인전 합의와 타이밍만 맞췄다. 2판 후 각 1만 2천을 송금했고, 상대가 먼저

“내일 추가 3판은 장당 1만으로 가시죠. 오늘 보니 페이스 괜찮네요.”라고 제안했다. 이후 석 달간 문제 한 번 없었다.

위험했던 케이스. “오늘 다이아까지 뚫어 드림, 장당 3천, 선입금 10판 패키지면 2만 5천.” 말만 들어도 달콤하다. 전적 링크를 요구했더니 스크린샷만 연속으로 왔다. 로비 초대는 “지금 PC가 느려서”로 회피. 대신 링크를 보내며 “여기 가입하고 충전하면 보장이 된다”고 했다. 링크를 눌러보니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낯선 결제 페이지였다. 여기서 대화를 끊었고, 닉네임과 계좌를 커뮤니티에 신고했다. 이 유형은 이후 다른 닉네임으로도 반복 등장했다.

롤커뮤니티의 자정 능력을 활용하기

안전한 거래는 개인의 주의 이상으로 커뮤니티의 자정 작용에 기대게 된다. 운영자에게 부담만 지우지 말고, 작은 피드백도 남겨 선순환을 만든다. “오늘 ooo님과 3판 진행, 약속 시간 준수, 소통 원활, 추천” 같은 간단한 후기만으로도 분쟁 확률이 줄어든다. 반대로 부정적 후기를 남길 때도 사실만 적는다. “장당 1만, 2판 후 추가 합의 예정이었으나 외부 결제 링크 유도, 거래 중단”처럼 구체적으로 쓰면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는다.

한두 번 안전한 거래를 만들면, 다음부터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한다. 신뢰 네트워크는 복리로 쌓인다. 오픈채팅에서 시작해도, 몇 번 거래한 뒤에는 소규모 고정 방이나, 디스코드 내 소수 채널로 옮겨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동심원이 생기면, 사기꾼이 끼어들 공간이 줄어든다.

듀오의 본질을 잊지 말기

듀오는 랭크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요술이 아니다. 의사소통, 포지셔닝, 타이밍, 승부욕을 서로 보완하는 파트너십이다. 그래서 단발의 스펙보다, 약속을 지키고 기록을 남기며, 작게 시작해 키우는 태도가 더 안전하고 현명하다. 때로는 사람을 구하는 과정이 귀찮게 느껴져 선입금의 유혹이나 빠른 지름길에 손이 갈 수 있다. 그럴 때일수록, 검증을 라이브로, 결제를 쪼개서, 기록을 남기는 세 가지 원칙을 떠올리면 된다.

롤커뮤니티는 생각보다 작다. 좋은 평판은 빠르게 퍼지고, 나쁜 행태는 더 빨리 드러난다. 몇 가지 상식적 절차만 지켜도 손해는 대부분 피할 수 있고, 도리어 좋은 인연이 생긴다. 시야를 넓게, 손은 작게, 대화는 분명하게. 이 세 가지가 듀오에서 사기 안 당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